

고은 불교 대하소설

무욕도의 빈 정사(精舍)

무 전 만화 남작이 차려로 이곳을 떠나자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되었다. 사람의 기운은 짙아들어가고 그래서 파도소리만이 더욱 크게 들리는 것이었다.

이런 섬의 숲속을 거미줄에 물으며 내려오는 불이가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지방세계가 내 몸으로 나타나리라(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現全身)」라고 읊어도 그런 것은 숲 위를 슬어가는 바람소리 아래에서 한갓 미물이 내는 소리일 수밖에 없었다.

“나도 떠나야 하리.”
“떠나야 하리.”
“이제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하는 곳이다.”

이제 단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같은 생각이 불이의 마음속에서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불이는 이 섬의 도랑에서는 드물게 학식과 시흥이 깊은 문자승이 아니던가.

그가 인담으로부터 “문자가 벽간출 아시오. 문자에 감히 있으면 거기서 뛰쳐나와 별건곤(別殿坤)이 있다는 것을 영영 모르고 그 문자에 묻은 풀이나 할아 먹다가 말 것이오”라는 호된 경고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번은 몹시 추운 날 오후의 작두 끝에 생나무로 불을 놓아 몸을 녹이고 있는데 가장 온후하던 인담이 불이를 그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일이 있었다.

불이는 본능적으로 그 불구덩이를 뛰어넘어 저쪽으로 가서 풀이 있었다. 그때 인담이 파란색과 큰 소리로 웃어대는 것이었다.

“하하하... 불속에 문자타령의 부처를 넣으니 문자는 타버리고 부처가 살아 남는 광경이었어!”
“하하하... 문자가 불에 타니 재로도 남지 않고 자취가 없게 되었어!”

그때 불이가 인담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스님께서서는 지난날 무엇때문에 서하문집(西河文集)의 꿈을 꾸어 황해도까지 그것을 찾아갔습니까?”

“허허 오늘의 입춘이 옛 입춘을 시샘하는구려.”
“아니지요. 스님께서 옛 입춘이 되지 못하여 그의 시문을 미워하시지요.”

“불이당(不二堂)! 한치 허끝에 지옥이 있는 줄 모르십니까?”
“한 치 허 끝의 계승에 화중연화(火中蓮華)의 꽃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저런 선무당 좀 보아.”
“도인의 눈으로 보아야 도인이 보인다 합니다.”
“허어.”

이렇게 신참자인 불이가 무욕도 도랑의 회주(會主)로 받아들여지는 인담을 몰아붙이는 것은 자못 사람들의 화기(和氣)에 드리운 삼엄한 그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난감한 분위기를 지금은 이승을 떠난 만화가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만화가 그 우람한 몸을 땅에 던져 인담에게 3배의 큰절을 드리고 불이에게 1배의 큰절을 드렸다.



35

그런 다음 “자아 내 절 밖소서”하고 무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마구 절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절 밖이면 내생에는 이자(利子)까지 물어야 할 관이니 금생에 아예 받지 않겠오”하고 웃어대는 축도 있었다.

“에잇 겁장이 도인들!”
하고 만화가 돌 하나를 집어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팔매질을 하였다.

이런 불이가 그 뒤로는 이상하리만치 대중의 누구와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아름

것은 어긋나기를 10만8천리나 된 것을 알았다!

그는 강다짐으로 그 자신을 다그쳤다. “아니지! 나는 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뜻을 같이하여 함께 떠날 것이야.”

그가 두 니승(泥僧)의 정사 위쪽에서 합두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흥지! 저 여자하고 떠날 것이야!”라고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그가 인기척을 보았다. 그녀는 돌아다보지 않았다. 파도소리 한덩이가 아니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로 그들의 위

에서 들렸기 때문에 인기척을 모른 것이나.

“합두스님!”
그렇게 소리를 키워 불러서야 그녀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디 다녀 오십니까?”
“저 위 아무도 없는 곳에 인사를 여쭙고 오는 길입니다.”

“호오 스님께서서는 함으로 지극하십시오.”

“이 바다를 바다로만 바라보는 일은 윤회를 모르는 일입니다.”

만 바라보는 일은 윤회를 모르는 일입니다... 스님이 바라보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불이스님! 저는 이제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이곳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 금생에서 이렇게 잘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바다야말로 제 기쁨의 양으로 채워지는 중입니다.”

“그 기쁨이 헛된 줄 아실 것입니다.”
“헛된 것이 어찌 제 기쁨 뿐이겠습니까? 스님의 공부도 헛된 것이지요.”

그녀의 말은 점점 대답해지기 시작하였다.

불이가 한 마디 남기고 먼저 내려갔다. “내가 스님의 손을 잡은 일도 헛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잠차 내가 스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먼 길이 이 바다 위에 나 있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두는 이런 대답한 구석이 있는 불이가 왜 그렇게도 섬악한 목격종의 사람으로만 보였는지 그것이 이상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며칠전 꿈이 생각났다. 그녀의 죽은 남편이 배를 타고 무욕도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 그녀에게 손짓하는 꿈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고 있는 자신이 역겨웠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그것은 임신부의 구역질 따위와는 다르게 어떤 슬픔을 동반한 것이었다.

“윽! 윽!”
누가 들을까 민망한 그런 구역질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한동안 그것은 멈출 줄 모

르고 계속되었다. 수윈과 수월이 합두가 속이 뒤집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

“속이 불편하십니까?”
“.....”
“인담스님한테 가서 침이라도 맞으시나.”

“.....”
그들에 끌려가다시피 갈대정사 큰방으로 갔다. 인담이 합두의 안색을 살폈다. 구역질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침을 맞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녀가 와서 창백한 합두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생겼다.

“어제도 얼굴에 파란 기운이 돌았습니까?”
“관항을 것입니다. 가서 누워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녀를 우녀가 부축하여 그녀들의 거처



그림 · 조항숙

만물이 무상한 것이라면 그 만물의 행에 본분이 있을 것이다. 그럴진대 행으로서의 선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곳에 혼자 앉아 있음이 무슨 도란 말인가...

다른 남자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가 섬의 꼭대기 웅망정사에서 하루의 좌선을 하고 내려오면서 파산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것이다. 만물이 무상한 것이라면 그 만물의 행에 본분(本分)이 있을 것이다. 그럴진대 그 행으로서의 선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곳에 혼자 앉아있음이 무슨 도란 말인가...

대체로 이런 회의가 그의 것이 아닌 상태로 다른 사람의 것이 들쭉뒤집어져서 그의 마음에 달라 붙었던 것이다.

그래서 “떠나야 하리”라는 결의의 첫걸음이 있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 불이가 울만에서 내려오는 동안 차츰 그 결의는 단단한 콩나물의 질(質)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곳을 비워서 갈매기에게 넘겨주는 것이 도리일 터! 이곳에 사람이 건너 온 것 자체가 도리에 어긋난 일일 터!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시를 생각하고 도를 구하는

“무엇이 지극하다는 말씀이신지.”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대신 그녀의 아름답고 정숙한 얼굴에는 다른 뜻이 나타났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곳이라는 그런 감사의 뜻이었다.

기에 대고 불이는 더이상 그녀의 마음 속을 타진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어설려 하였지만 다리에 쥐가 났는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불이가 서슴치 않고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켜 세웠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문득 일어난 합두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다. 불이의 얼굴도 슬쩍 들떠야 하였다. 하지만 그의 말 한 마디는 대답하였다.

“전생과 금생의 기나긴 윤회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홀린 눈물의 양이 이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이 바다를 바다로

로 갔다. 큰방의 인담이 혼자 쓰겁게 중얼거렸다.

“햇속에 아라한(阿羅漢) 하나를 배고 있는 것이지. 암... 저만한 미색으로 어찌 사랑받지 아니라 귀신들조차 가만 두겠는가. 필시 이 섬의 남정네가 아니거든 섬 들레의 귀신과 접촉하여 그 씨를 뱀 것이지... 아니면 혼자 살 수 없는 처지의 여인인지라 상상으로 임신을 함으로써 임신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터이거나...”

다음날 불이는 합두의 구역질이 그 자신이 한 말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몸을 보아 두 사람만으로 합두와 만날 것을 피하고 있었다.

무전이 남겨놓은 피리를 그동안 맡아서 피리불기에 제법 익숙해진 불이가 오후의 작무가 끝난 뒤의 저녁무렵에 저쪽 바위너실 쪽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피리소리를 멈춘 뒤에는 시를 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피리소리의 반주로 이어 시를 읊는 것이고 시를 반주로 삼고 피리를 부

는 것이었다.

창과 출렁출렁 가을이 와서 바람과 비 돌아오는 배에 푸리네 (一帶蒼波兩岸秋 風吹細雨灑歸舟)

불이로서는 누구의 구절인줄도 모르고 술술 그의 시흥을 통하여 시를 비감에 젖는대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 구절이 입춘의 벗이므로의 시 ‘남비’인줄 알 길이 없는 불이의 금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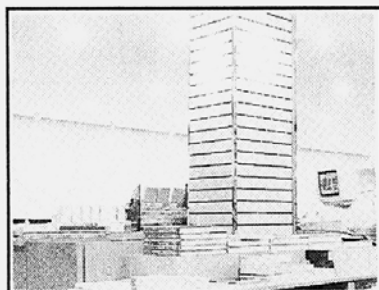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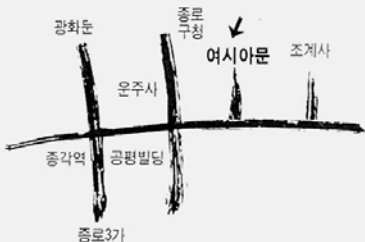
어디 시 한 구절일 따름인가. 전생의 어머니인들 그 어머니가 금생의 하룻밤 풋사랑의 여인이란 그 기구한 사연을 어찌 감당할 바이겠는가. 합두는 전생의 불이에게 누구였던가.

바로 그 합두가 바위를 돌아서 피리소리의 곳에 왔다. “불이스님!”이라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하나의 아름다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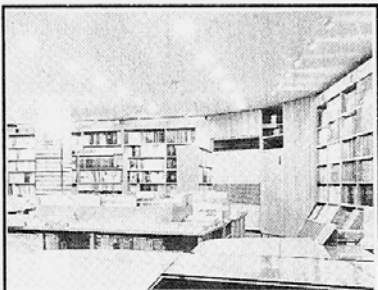
불교, 기독교, 법학, 기타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 (격월)
- 계절별 (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 - 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